

# 임시정부의 밀사

—정정화의 독립운동과 자기 서사

장영은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초빙교수

목차

- 1 상해(上海)의 애국부인
- 2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일
- 3 임정의 울타리와 여성 정치

3·1운동에 참가한 여학생 가운데 일부는 수감 생활을 마친 후 중국으로 이동해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다. 이 가운데 상해 애국부인회는 독립운동에 적극적이었지만, 이들에 대한 임시정부 내부의 시각은 상반되었다. 특히, 독립운동가의 아내 혹은 며느리의 신분 즉 독립운동가 가족의 일원이었던 여성들은 여학생 출신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정정화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만나기 위해 1920년 1월 상해로 망명했고, 1930년까지 임시 정부의 자금 모금 및 운반을 책임진 밀사로 활약했다. 동시에 임시정부의 안주인이라는 칭호로 불릴 정도로 임시정부의 살림을 맡아 헌신하기도 했다. 조혼으로 근대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정정화는 신여성에게 비우호적이었지만,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여성 지식인들과의 교류를 넓히고 우정을 형성하며 정치적 참여에 점차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해방 후 정정화는 감찰위원직을 제안 받지만 거절하고, 분단, 전쟁, 남편의 납북, 투옥 등의 역경을 모두 극복한 뒤 80대 후반에 자서전을 출간한다. 『장강일기』는 자서전인 동시에 독립운동사, 전쟁사, 가족사, 여성사 등의 사료적인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정정화가 신여성들과의 차별과 경쟁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구성하는 과정에 주목하여 『장강일기』를 재독하며, 임시정부는 정정화에게 사적영역이자 반(semi) 공적 영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국문핵심어: 정정화, 『장강일기』, 임시정부, 자기 서사, 신여성, 독립운동

무엇보다도 나 개인의 기록을 우선으로 했다.

그리고 임정을 떠난 나 개인의 기록이라는 것은 아무런 생동감도 없고,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는 것이기에 가능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임정의 안팎 사정을 모두 끄집어내려고 애썼다.<sup>1</sup>

—정정화

상해에 살 때 여러 유명한 독립운동 지도자들을 옆에서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은 늘 이집 저집서 모여 무슨 회의들을 했지만

아녀자들에게 독립에 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도 않았고

또 물어볼 수도 없었다.<sup>2</sup>

—한도신

## 1 상해(上海)의 애국부인

1920년 2월 17일 『독립신문』에 실린 한 편의 기사를 주목하며, 3·1운동 이후 상해의 상황을 짐작해보고자 한다.<sup>3</sup>

“지금 상해에 재(在)한 30여의 부인은 거의 일각의 한극(閑隙)이 없이 활동한다. 그네는 대개 여학교 출신으로 작년 3월 이래로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수개월의 옥중생활을 치르고 온 이들이다. (...) 상해에 재(在)한 그네는 애국부인회를 조직하였다. 그네는 돈을 모아 독립운동에 관한 사진첩 수천 부를 발행하여 서양과 한인(漢人) 방면에 배포하였고 또

---

1 정정화, 『장강일기』, 학민사, 1998, 10쪽.

2 한도신 기록, 김동수·오연호 정리, 『꿈 갖은 옛날 피 압흔 이야기』, 돌베개, 1996, 155쪽.

3 3·1운동을 기점으로 여학생 운동이 본격화되었음을 규명하고, 그 이후의 여학생 동맹휴학 및, 광주학생운동 등을 민족운동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로는 김정인, 「일제시기 서울의 여학생 운동」, 『일제시기 경성 지역 여학생의 운동과 생활』, 2019 서울역사 중점연구 중간발표회, 2019, 14-42쪽 참조.

장차는 태극기와 기타 대한의 독립운동을 연상할 만한 기념품을 만들어 널리 세계의 동정하는 인사에게 보내려 하며 혹은 조사의 직임을 맡아 독립운동사료와 선전재료의 수집에 종사하며 혹은 재무부의 수세원이 되어 세를 거두며, 혹은 군무부의 의용병권유원이 되며, 혹은 학교의 교사가 되며 혹은 적십자회의 간호부가 되어 독립전쟁의 준비를 하는 등, 상해에 재(在)한 남자로는 아무 사무 없이 우유(優遊)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여자로는 1인도 그러한 자가 없다.”<sup>4</sup>

『독립신문』 논설에 따르면, “작년 3월 이래” 즉 3·1운동에 참여하고 수감 생활을 마친 후 상당수의 여학생들이 상해로 망명했으며, 이들은 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확산시키고 있었다. 확실히 3·1운동은 여성이 정치의 주체, 독립국가의 공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상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역사적 사건이었다.<sup>5</sup> 따라서 3·1운동 직후 조직된 애국부인회 역시 여성이 독립국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실천한 정치적 활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

- 
- 4 「부인(婦人)과 독립운동」, 『독립신문』, 1920.2.17. 이준식은 「부인과 독립운동」의 필자로 이광수로 추정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준식,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여성 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61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9, 107-141쪽 참조. 한편,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상해 한인사회의 형성과정 및 한인사회의 조직상황에 관해서는 쉰커즈, 『상해 한인사회사: 1910-1945』, 한울아카데미, 2001, 25-111쪽 참조.
- 5 소현숙은 3·1운동에 여성들이 참여했다는 사실만을 기억할 때, ‘여성들의 3·1운동’은 보충사에 머물 뿐이고 젠더를 민족사에서 탈각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혁명과 젠더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성별 역할과 실제로 남녀가 담당한 역할에 그리고 양성의 표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해야 한다는 도미니크 도디노의 지적이 3·1운동에도 유효하다고 파악한 소현숙은 실제 3·1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이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정치적 주체로 등장했던 순간들을 날카롭게 포착했다. 남성의 영향권 안에서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기존의 인식을 전복시키는 사례들을 발굴한 점 또한 인상적이다. 예를 들어 경성여고보생이었던 최은희가 자물쇠로 잠겨 있던 기숙사 문을 식칼과 도끼로 두들겨 부수고 거리로 나와 시위대에 합류했다가, 담배를 피우며 바라보고만 있던 제1고보 남학생의 뺨을 때리며 정치적 각성을 촉구한 점은 3·1운동이 여성에게 독립운동사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증명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현숙, 「3·1운동과 정치 주체로서의 ‘여성」,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 100주년기획위원회 엮음, 『3·1운동 100년—5.사상과 문화』, 휴머니스트, 2019, 161-186쪽 참조.

용한 『독립신문』 기사의 내용 역시 애국부인회의 활약상을 크게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sup>6</sup> 하지만, 당시 이들을 향한 교포 사회의 시선은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1920년 1월 중순, 상해에 도착한 정정화의 회고는 『독립신문』의 관점과는 매우 상반되었다.

상해에는 당시 여성들만의 모임으로 대한부인회 등이 있었으나 나는 그 단체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모임의 주동 인물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이화여전 등을 나온 이른바 신여성으로서 그 중 몇몇은 신식교육을 받고 앞서가는 여성입네 하고 눈 밖에 나는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의 눈총을 사기도 했다. 그래서 넓지 않은 상해의 교포 사회에서도 호응을 받지 못했다.

나도 그런 단체는 신식 공부한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생각하고 가담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sup>7</sup>

누구의 주장이 더욱 사실에 가까운지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왜 이런 (비)가시적 갈등이 존재했는가? 그 점을 먼저 생각해보고 싶다.

---

6 김성은은 상해 임정시기 여성독립운동의 조직화 과정을 추적하고 그 특징을 규명하는 연구 성과를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대한애국부인회는 1919년 4월에 상하이에서 결성되었다. 초대 회장은 김순애가 선출되었다. 독립운동 자금 모금, 적십자회 활동과 간호법 연습, 국내외 애국부인회와의 통신과 연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지와 후원, 한중단체 연설 및 강습회 운영, 3.1운동 기념일과 국치기념일 홍보 활동 등을 추진했다. 김순애, 김마리아, 차경신은 정신여학교, 이화숙은 이화학당 대학과, 김원경은 경성여고보, 정애경은 승의여학교 출신이며 대부분 3.1운동 이후 상하이로 망명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독립신문의 논설은 역사적 사실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배용, 「중국 상해 대한애국부인회와 여성독립운동」, 『이화사학연구』 제30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2003, 343-364쪽; 김성은, 「상해 임정시기 여성 독립운동의 조직화와 특징」, 『여성과 역사』 제29호, 한국여성사학회, 2018, 287-338쪽 참조. 한편, 김순애와 김마리아의 활동에 관해서는 아래의 연구들을 참조. 강영심, 「김순애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3호, 한국근현대사학회, 2012, 7-41쪽; 박용옥, 「김마리아의 망명생활의 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22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9, 267-338쪽.

7 정정화, 앞의 책, 65쪽.

3·1운동에 참가한 ‘여학생 출신’들은 이른바 1세대 여성 지식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주요섭의 「조선여자교육사」에 따르면 1880년대 후반부터 이화, 정신학교가 설립되었고, 1906년 진명과 숙명 등의 사립여고보가 설립되었다. 평양, 개성, 진주, 대구 등 지방 도시에 여고보가 설립된 것은 1919년 이후부터다. 1919년에 여학생 수는 687명으로 집계되었고, 1920년에도 705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sup>8</sup> 학교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그야말로 드문 존재들이었다. 이른바 명문가 출신 여성에게도 학교 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정정화의 삶 또한 역사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았다. 우선 정정화의 망명은 상해의 ‘여학생 출신’들과는 분명 달랐다. 정정화는 1910년 “친정 할아버지가 눈감기 전에 손녀를 시집보내겠다고 고집을 부린 덕에” 결혼했다. “열한 살 때의 일이다.”<sup>9</sup> 세상이 바뀌고 있었지만, 양반 가문들끼리의 혼사가 이루어지며 정정화는 진학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공조판서와 농상공부 대신을 지낸 김가진이 동갑내기 남편 김의한의 아버지였다. “조선 왕조 오백년 사상 처음으로 서출로서 종일품의 직위까지 오르게” 되었던 김가진은 “이미 없어진 나라”를 슬퍼하면서 “문 밖 출입 없이 꿈쩍 안” 한 채로 살았다.

1919년이 되자, 김가진은 “칠십이 넘은 고령답지 않게 오히려 활기에 넘치는 생활”을 되찾았다. 항일 비밀결사단체 대동단의 총재직을 맡은 김가진은 3·1운동을 체험하며 큰 결단을 내린다.<sup>10</sup> 1919년 10월 10일, 중국 상하이로 아들 김의한과 함께 망명한 김가진은 임시정부에 합류했다. 정정화는 “시대에 남아 있는 것보다는 시아버님 곁에서 시중을 들어드리는 것이 나을 것”<sup>11</sup> 같다고 판단하고 혼자 상하이로 떠난다. “열한 살에 시집와 세상 문을 닫고 규방에 갇히고, 열아홉에 첫아이를 낳아 잃고, 남편을 떠나보낸” 스무 살의 정정화는 압록강을 건너 봉천, 산해관, 천진, 남경을 거쳐 1920년 1월 중순 상해에 도착한다.

8 여학생 수와 관련해서는 주요섭, 「조선여자교육사」, 『신가정』, 1934.4. 노지승, 『유혹자와 희생양—한국 근대 소설의 여성 표상』, 예맥, 2009, 52쪽에서 재인용.

9 정정화, 앞의 책, 18-19쪽.

10 비밀유지를 위해 점조직으로 운영되었던 대동단의 특징 및 김가진의 망명 과정에 대해서는 신복룡, 『대동단실기』, 선인, 2014, 23-59쪽 참조.

11 정정화, 앞의 책, 39-47쪽.

“난생 처음으로 밟아보는 중국 땅”은 감격스러웠다. 정정화는 “프랑스 조계 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의 생활”을 시작한다. 정정화는 임시정부의 실상을 목격하고 낙담한다. “금방이라도 무슨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분위기였는데, 막상 상해에 직접 와서 보고 듣고 알게 된 임시정부는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하였다.” 한 달 넘게 임시정부를 지켜본 정정화는 “국내에 들어가서 돈을 구해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정화는 “친정에 가서 돈을 좀 얻어와 볼까”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임시정부 관계자들은 “국내는 사지(死地)나” 다름없다고 걱정을 하면서도 내심 반가워했다. 정정화는 “임시정부 법무총장 신규식의 지시에 따른 공적인 임무”을 안고 다시 국내로 잠입한다. “귀골로 곱게 산 사람이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다는 찬사와 우려를 들으면서 정정화는 밀사의 역할을 여러 차례 훌륭하게 수행한다. 1930년까지 임시 정부의 자금 모금 및 운반을 책임진 정정화에게 애국부인회의 활동은 부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판의 근거는 ‘여학생 출신들’의 태도에 있었다. 정정화의 아들 김자동의 애국부인회 비판은 더욱 신랄하다.

어머니가 처음 상해에 망명했을 무렵 상해에는 신여성들이 주도하는 애국부인회 조직의 움직임이 있었다 한다. 신교육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부인들은 그러한 움직임에 관여할 생각을 못했다. 그런 일은 신여성들만이 하는 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사실상 그러한 단체는 주로 지식과 미모를 겸비한 신여성들의 탁상공론을 위한 모임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 독립운동에 기여한 일이라고 해봐야 성명서 몇 장 내는 데 지나지 않았다.<sup>12</sup>

“몇몇은 신식교육을 받고 앞서가는 여성입네 하고 눈 밖에 나는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의 눈총을 사기도 했다.”는 정정화의 진술과 “지식과 미모를 겸비한 신여성들의 탁상공론을 위한 모임”이라는 김자동의 비판은 논리적 타당성의 여부와 별도로 1920년대 초반 상하이의 ‘여학생 출신’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반감을 다

12 정정화, 앞의 책, 332쪽.

분히 내포하고 있다.

동시에 “신교육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부인들은 그러한 움직임에 관여할 생각을 못했다. 그런 일은 신여성들만이 하는 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에서 이른바 신여성과 구여성 사이의 분열과 차별을 감지할 수 있다. 근대 교육 수혜 여부는 여성들의 신분을 판가름하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었다. 신분제가 철폐되었지만 이른바 양반 가문들의 자부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한 양반 집안 여성들의 진로는 진학 대신 결혼으로 결정되고 있었다. 하지만 여학생들이 등장하면서 근대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지 못한 양반 출신 여성들의 사회적 위상과 상징성은 하락하고 있었다. 소수의 신여성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나머지 여성들은 구여성이 되고 말았다. 신여성은 부러움과 동경, 질시와 비난을 동시에 받았다. 조선 사회뿐만 아니라 상해의 독립운동가 진영에서도 환영과 비난을 동시에 받았다.

특히 독립운동가의 아내 혹은 며느리의 신분 즉 독립운동가 가족의 일원으로 중국에서 거주 중이었던 여성들은 ‘여학생 출신’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때로는 혐오에 가까운 시선으로 차별했다.<sup>13</sup> ‘신교육’은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1998년 출간된 정정화의 『장강일기』를 분석하며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고자 한다.<sup>14</sup> 『장강일기』는 자서전인 동시에 독립운동사, 전쟁사, 가족사, 여성사 등의 사료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

13 이상경, 「상해판 『독립신문』의 여성관련 서사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10호, 한국여성연구소, 2010, 89-128쪽. 이상경은 선구적으로 상해판 『독립신문』에 실린 「여학생 일기」를 발굴·분석하며, 1910년대 학교 현장에서 일본과 조선을 문명과 야만의 구도로 설정하고 조선 침탈을 시혜로 해석하는 일본인 교사에게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여학생들의 의식 성장 과정에 주목한다. 이상경은 「여학생 일기」의 저자를 김원경으로 추정한다. 한편, 이상경의 분석에 따르면 독립신문에 연재되었던 「피눈물」은 「여학생 일기」와 달리 3.1운동에 참여했던 여성을 수동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재현했다. 한편, 윤정란은 독립운동가의 가족구성원으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삶을 폭넓게 검토하고, 유교적 여성관을 교육 받고 자란 여성들이 가부장제를 내면화함과 동시에 민족, 국가 등의 거대담론 속에서 어떻게 희생되었는가를 분석하며 허정숙을 비롯한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윤정란, 「독립운동가 가족구성원으로 여성의 삶」, 『한국문화연구』 제14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105-132쪽 참조.



2019년 현재까지 꾸준히 연극, 영화 등으로 각색되어 대중들과 만나고 있다.<sup>15</sup> 3·1운동 이후 등장한 여성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인식이 스스로의 삶을 구성하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장강일기』를 재독하며 분석해보고자 한다.

## 2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일

망명 생활은 예측불허의 연속이었지만, 정정화는 상해에서 학식을 쌓을 기회를 가졌다. “당시 상해에는 내 향학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가 여러분 있었다. 특히 성재 이시영 선생과 세관 유인옥 두 분이 내 공부를 성의 있게 도와주었다. 성

---

14 정정화는 1987년에 자서전 『녹두꽃—여자독립군 정정화의 낮은 목소리』를 발간했지만, 출판사의 사정으로 책이 절판되었다. 독자들의 요청에 힘입어 정정화의 아들 김자동이 『녹두꽃』의 검수를 거치고 제목을 『장강일기』로 변경해서 1998년 학민사에서 재판이 출간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정화, 『녹두꽃—여자독립군 정정화의 낮은 목소리』, 미완, 1987; 정정화, 『장강일기』, 김자동, 「개정판에 붙이는 글—다시 어머니에 대하여」, 학민사, 1998, 12-13쪽 참조.

15 『장강일기』를 원작으로 정정화의 일대기를 다룬 「아, 정정화」가 1998년 8월 연강홀에서 초연되었다. 2001년 8월에는 「치마」라는 제목으로 정정화의 생애가 연극 무대에 올랐고, 이 작품은 2002년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도 흥행에 성공하며 특히 재일교포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2019년 5월에는 정정화가 자신의 회고록을 읽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연극 「달의 목소리」가 공연되었다. 한편, 2019년 11월에는 독립운동가 정정화, 제주 4·3 항쟁 투쟁가 김동일, 빨치산 고계연의 생애를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켜 복원한 임흥순 감독의 다큐멘터리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이 개봉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명식,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안살림꾼 정정화』, 역사공간, 2010, 7-8쪽, 「‘임시정부의 안주인’ 정정화, 연극으로 되살아난다」, 『연합뉴스』, 2019.5.20.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 개인의 일대기를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킨다」, 『씨네21』, 2019.12.4. 참조. 여성적 글쓰기로서 『장강일기』의 성취 및 한계에 관해서는 아래의 연구를 참조. 김귀옥, 「식민적 디아스포라와 저항하는 여성—이은숙과 정정화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2호,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79-112쪽. 김귀옥은 이 논문에서 조선 말기 지배층 명문가 출신의 여성들인 이은숙과 정정화의 자기 서사를 분석하고 이들이 지배층 여성에서 디아스포라 난민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민족 저항적 의식을 수용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이은숙과 정정화는 독립 운동에 적극적으로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독립운동사에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한다. 정정화의 생애에 관해서는 한시준, 「정정화의 생애와 독립운동」, 『사학지』 제47호, 단국대학교 사학회, 2013, 131-153쪽 참조.

재는 한학과 역사 서적 등을 내게 가져다주었고, 세관은 나에게 영어 공부를 시켰다. 나는 중국의 고전에서 신학문에 이르기까지 구할 수 있는 책이면 닥치는 대로 읽었다. 유세관은 자주 우리 집에 들러 나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미국이란 나라에 관한 얘기도 들려주었다.”<sup>16</sup> 남편의 친구들이었던 우승규(필명 나절로), 심대섭(필명 심훈), 윤보선 등이 자주 집으로 찾아왔다. 이들의 우정을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며 정정화는 망명 정부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게 된다.<sup>17</sup>

‘신여성’이 될 기회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정정화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딸들에게 언문 이상의 공부를 시키려 하지” 았았던 정정화의 아버지는 임시정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딸의 안위와 미래가 염려되었다. 뒤늦게나마 정정화의 아버지는 딸에게 미국 유학과 일본 유학을 여러 차례 권유했지만, 정정화는 끝내 임시정부를 떠나지 않았다.

미국으로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내 뜻을 밝힌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했다. 나는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시대 어른을 모셔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일이 한번 있었던 참에 아버님이 내게 다시 공부할 생각이 없느냐고 재차 권유하신 것인데, 이번엔 일본에라도 유학을 가겠다고 보내 주시겠다고는 것이었다. (...) 아버님의 말씀대로 내가 만약 적국인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한다면 상해 살림은 누가 맡아서 할 것인가? 시아버님 조석 시중은 누가 들 것인가?<sup>18</sup>

정정화에게 임시 정부는 가족과 동의어였다. 상해에 정착한 이후부터 정정화는 스스로를 독립 운동가이자 임시정부의 안주인으로 생각했으며, 자신이 맡은 역할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애국적이고 희생적인 ‘공화주의적 모성’

16 정정화, 앞의 책, 65-66쪽.

17 한나 아렌트는 우정은 공동체적 유대를 구성하는 출발점이며, 우정이야말로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정치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자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나 아렌트, 이진우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17, 43-188쪽 참조.

18 정정화, 앞의 책, 70-71쪽.

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던 19세기 미국여성들의 자부심과 유사한 정정화의 자긍심을 『장강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9</sup> 거다 러너가 밝혔듯이, 미국 공화국 초기에 기금 모금, 불매 운동, 청원 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여성들은 자발적인 군대 후원 및 가정에서의 경제적인 역할 등을 통해 사적 역할과 공적 역할에 모두 “새로운 자아감”을 찾았다.<sup>20</sup> 정정화도 임시정부의 자금을 조달하고 독립운동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한편 임시정부의 살림을 돌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했다. “나는 그렇게 임시정부와 함께, 임시정부의 식구들과 함께 먹고 잠 자고 같이 일했다.”<sup>21</sup>

한편, 상해에서 활동 중이었던 ‘신여성’ 독립 운동가들 또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었다. 1921년 7월 상해로 망명해 임시정부에 참여한 김마리아는 1922년 임시 의정원 첫 여성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같은 해 권애라, 김원경, 정수정은 모스크바 극동인민대회에 여성 대표로 참석했다.<sup>22</sup> 3·1운동을 상해와 미국 등에 알린 현순 목사의 딸 현앨리스도 가족과 함께 1920년 5월 8일 상해에 도착해 학교를 다니며 박현영, 주세죽 등과 교우 관계를 가졌고, 1921년 일본 유학을 거쳐 1923년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났다.<sup>23</sup> ‘신여성’들은 일본, 미국, 러시아 등으로 떠나거나 상해에서 ‘신교육’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상운동을 펼쳤다. 임시정부를 지키면서 여성 독립운동가로 성장하고 있었던 정정화의 삶과는 대조적이

19 Mary Ryan, “Gender and Public Access: Women’s Politics on 19th Century America,” John B. Landes ed., *Feminism, The public and the private*,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8-503쪽 참조.

20 이와 관련해서는 거다 러너, 김인성 역, 『역사 속의 페미니스트—중세에서 1870년까지』, 평민사, 1998, 304-310쪽 참조.

21 정정화, 앞의 책, 9쪽.

22 박용욱, 『김마리아—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 흥성사, 2003 참조. 김마리아는 1922년 2월 18일 황해도 선출의원으로서 임명되었지만 건강상의 문제와 미국 유학 등의 이유로 등원을 미루고 있었고, ‘의원이 무고히 개회 후 7일까지 등원치 않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의정원법 제8조에 의거해 의원자격을 상실했다. 『독립신문』, 1922.3.1. 모스크바 극동민족대회와 관련해서는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3, 508-522쪽 참조.

23 정병준, 『현앨리스와 그의 시대—역사에 휩쓸려간 비극의 경계인』, 돌베개, 2015, 17-79쪽 참조.

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정화의 아버지는 딸의 안전을 염려하여 향학열 높은 정정화에게 미국 유학을 권유했지만, 정정화는 시아버지 김가진을 홀로 두고 상해를 떠날 수 없었다. 1922년 7월에 김가진이 세상을 떠났다. 며느리 역할에서 자유로워졌다. 정정화는 1922년 10월에 또 다시 밀사로 파견되었다. “상해 집에는 돌보아드릴 노인도 이미 안 계셨으므로 귀국하는 동안 얼마 동안 체류할 계획이었다.” 이 시기에 정정화는 근화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배웠고, 자연스럽게 미국 유학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정정화의 아버지는 “봄이 되면 쌀을 팔아서 3천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923년 이른 봄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으면서 정정화의 미국 유학 계획은 무산되었다. 중국에서라도 학업을 이어가고 싶었던 정정화는 1925년에 상하이의 혜중학교에 입학했지만, 건강 문제로 결국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sup>24</sup> 3년 후인 1928년에는 아들을 출산했다. 정정화는 임시정부로부터 큰 위안을 얻었다. 이동녕, 이시영, 안창호, 조완구, 김구, 신건식 등 “임정의 어른들이 찾아와” ‘동농 선생 손자’의 출생을 축하했다.<sup>25</sup> 정정화의 아들은 “임정의 ‘대표 손자’라는 별명”<sup>26</sup> 들으며 자랐다. 혈통과 가족적 유대감을 중요시했던 임시정부의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

“임시정부의 큰 어른” 김구는 정정화 가족과 인연이 깊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배가 출출하면 서너 시쯤 백범이 우리 집으로 온다.” 후동 어머니, 나 밥 좀 해 줄라우?“ ”암요. 해드려야죠. 아직 점심 안 하셨어요? 애 좀 봐주세요. 제가 얼른 점심 지어 드릴게요.” 김구의 부인과 어머니의 임종을 지킨 것도 정정화였다. 시아버지 김가진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며느리의 굴레에서 벗어났지만, 정정화는 임시정부의 종부(宗婦) 역할을 적극적으로 떠맡았다. 정정화는 “백범의 어머니”를 『장강일기』에 상세하게 기록하며, “위인의 어머니” 광낙원이 실천했던 헌신적인 삶을 높이 평가했다.

위인의 어머니는 더욱 위인다웠다. 평상시에 한마디씩 건네주는 말 속

---

24 김자동, 『임시정부의 품 안에서』, 푸른역사, 2014, 64쪽 참조.

25 위의 책, 65쪽 참조.

26 정정화, 앞의 책, 218쪽.

에, 때로는 눈물이 절끔거리는 매섭게 꾸짖는 말 속에 그분의 소박하되 의기서린 인품이 고스란히 배어나오곤 했다. 광여사는 쉬운 한글 몇 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읽을 정도로 배운 것이 없는 분이였다. 그러나 많은 교육을 받은 어느 지식인 못지않게 침착하고 대범하고 경우가 밝은 분이였다.

그 분이 갖춘 이런 덕목들은 특히 임정의 살림을 맡고 있는 우리 아녀자들에게 그대로 귀감될 만한 것들이었고, 사실 딱딱하기 그지없는 임정의 하루하루 생활에서는 더더욱 필요한 자세였다.<sup>27</sup>

앞서 ‘애국부인회’의 여학생 출신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단 한 사람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김구의 어머니는 광낙원으로 명시되었다.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광낙원의 생애에서 “임정의 살림을 맡고 있는 우리 아녀자들에게” ‘귀감’이 될 덕목을 추론했다는 점이다. 김구의 어머니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 했고, “쉬운 한글 몇 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읽을 정도”의 지식밖에 없었지만, 임정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김구의 부인 최준례,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다. 학식보다 헌신과 희생 등의 품성을 여성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언급한 점이 인상적이다. 여학생 출신의 신여성 독립 운동가들이 해외로 이동하며 각자 활로를 모색한 것과 달리 교육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의 부인과 어머니들은 임시정부를 지키는 방식으로 신뢰를 획득하며 각자의 지위를 확보해갔다.

임시정부에서의 역할과 지위는 정정화와 사뭇 달랐지만, 1922년 임시정부에 합류한 한도신의 회고록에서도 신여성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1919년 2월 직접 태극기를 만들어 평양에서 3·1운동을 주도한 김례진은 임시정부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한도신은 남편을 따라 1922년에 자녀들을 데리고 상해에 도착한다. 한도신은 임시정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지만, 상해에서 활동하는 여성 독립 운동가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한도신은 조신성을 주목했다.

---

27 정정화, 앞의 책, 121쪽.

다 잘 아는 대로 유관순은 15세의 나이로 천안 지방에서 3.1운동을 지휘하다 잡혀서 감옥에서 죽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상해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한 예로 내가 상해에서부터 알고 지낸 여인이 있었는데 이름은 조신성이다. 이 분은 고종 4년생인데 열아홉 살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 기독교 신자가 된 그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 이화학당 기숙사의 사감을 지내기도 하고 평양에 가서 진명여학교를 창설하기도 했다. 조신성 여사는 평생 나라를 위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고생을 했다. 평양에서 상해로 군자금을 날라다주고, 상해의 독립군들이 비밀작전을 할 때마다 무기를 치마 속에 감춰 날라다주는 등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하면서 남자 이상으로 독립운동을 했다.<sup>28</sup>

조신성은 일본 유학의 경험을 가진 신여성이지만, ‘과부’ 출신에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며 독립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여학생’ 출신들과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한도신의 주장에 따르면, 존경받는 여성 독립 운동가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적인 태도는 물론이고 ‘여걸’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성품과 탁월한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결코 과시하지 않는 겸손함이 요구되었다.<sup>29</sup> 상해에서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하면서 남자 이상으로 독립운동을” 한 여성들이 있었지만, 임시정부의 가부장성은 굳건했다. “임정의 식솔들”, “동지 결혼” 등의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다.<sup>30</sup>

반면 독신의 ‘여학생 출신’ 운동가는 상하이 임시정부 관계자들에게 불편하거나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기도 했다. 한도신은 “상해의 독립군 처녀들 중에는 간혹 남편을 육체적으로 유혹한 이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속옷 바람으로 남편의 방에 들어왔다” 망신을 당한 “신식여성”을 “속으로 나무랬다”고 기록했다. ‘여학생 출신’ 운동가들은 여성의 삶이 남성과의 사회적 관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머니, 아내, 딸, 연인, 누이 등의 가부장제 구조 속에서 의

28 한도신, 앞의 책, 158쪽.

29 조신성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연구를 참조. 윤정란, 『조신성—서복을 호령한 여성독립운동가』, 역사공간, 2009, 21-38쪽 참조

30 정정화, 앞의 책, 185쪽.

미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질서를 거스르는 존재들로 인식되었다. 특히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감추지 않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는 ‘여학생’이라는 정치적 주체는 환영받지 못했다.<sup>31</sup> 물론 학교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여성들과 차별화하면서 드러낸 것도 사실이다.<sup>32</sup> 그러나 상해에서 신여성과 구여성의 갈등 양상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 3 입정의 울타리와 여성 정치

신/구여성의 경계가 ‘학교’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학교’만으로 여성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정정화는 임시정부의 밀사와 안주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면서 1920년대 상해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구축했다.<sup>33</sup>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전통적 가치관에 충실했던 정정화는 ‘임시 정부의 선배’ 즉 남성 지식인들의 도움을 받아 공부에 매진했다. 그들과 함께 중국 고전을 통독하고, 외국어를 익히는 한편 역사와 정치, 외교 등 다양한 방면의 서적을 읽으며 학식을 쌓았다. 임시정부의 한계를 직시하는 현실 인식도 돋보였다. “당시 임정은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31 김은실은 민족주의가 가부장제의 공사개념을 지배담론으로 활용하면서 남녀의 성역할을 탈역사화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여성 경험의 주체화에 관한 논의를 펼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은실, 「민족 담론과 여성—문화, 권력, 주체에 관한 비판적 읽기를 위하여」, 『한국여성학』 제10호, 한국여성학회, 1994, 18-52쪽 참조.

32 이와 관련해서는 정미경, 「일제 시기 ‘배운 여성’의 근대교육경험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2000, 1-173쪽 참조.

33 다만 임시정부의 밀사 및 안주인 역할이 공적 영역 진출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19세기 영국의 상류층 여성들이 이른바 반(semi) 공적 영역 활동을 출발점으로 여성의 복지 개선 운동을 확대시켰다는 점에 착목해서 다비도프는 여성에게 공적 영역은 단일하거나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성에게 사회적인 것의 의미, 공적 영역과 반(semi) 공적 영역은 무엇인가라는 다비도프의 질문 및 개념화 작업에서 정정화의 생애를 재해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Leonore Davidoff, *Worlds between: historical perspectives on gender and class*, Polity Press, 1995, 13-139쪽 참조.

우리 동포의 망명 세력 간에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sup>34</sup> 정정화의 정치적 판단력은 뛰어났지만, “한독당 여당원의 친목단체 구실”에 만족하며 정치 활동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독립운동가 혹은 임시정부의 밀사인 정정화는 김가진의 며느리, 김의한의 아내, 김후동의 어머니의 역할에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 또한 가족의 범주를 임시정부로 확대했다. 정정화는 ‘임정 단체’, ‘임정의 울타리’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다. 정정화에게 임시정부는 사적 영역이자 반(semi) 공적 영역의 의미로 존재했다.

아들 후동이는 그 동안 소학교를 다섯 군데나 옮겨 다니면서도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고, 틈틈이 겨를이 생길 때마다 나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사사로운 일들은 임정이라는 단체의 전체적인 계획이나 움직임에 맞추어 공적인 일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이 가능했다.

더구나 성업과 내가 우리 동포들의 망명 사회에서 신임을 잃지 않고 그들과 잘 어울릴 수 있었던 것은 큰 다행이었다. 시아버님의 후광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성업은 성업대로 나는 나대로 임정의 일이라면 서슴지 않고 나서서 뛰어다녔고,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정의 국무위원들에게 뿐만 아니라 임정의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꽤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었다.

내가 수차에 걸쳐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본국에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이제 동포사회에서는 하나의 일화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고, 그 덕에 나는 일종의 명성까지도 얻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 나는 스스로 조국 독립을 위한 항일투쟁의 선봉에 나섰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 그럴 만한 능력도 자질도 없는 사람이고, 그저 평범한 어느 아낙네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 (...)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이 나로 하여금 임시 망명정부의 저 구석자리 하나를 차지하게끔 한 것이고, 내가 그 자리

---

34 정정화, 앞의 책, 194쪽.



를 충실히 그리고 성실하게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sup>35</sup>

‘임정의 일이라면 서슴지 않고 나서서’ 뛰어 다니며 동포 사회의 ‘신임’과 ‘임정의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꽤 두터운 신임’과 ‘명성’을 얻고 있었지만 정작 정정화는 자신의 정체성을 망명정부의 ‘구석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을 뿐인 “그저 평범한 어느 아낙네”로 표현했다. 임시정부 대의원으로 활동했고 한국국민당을 창당한 양우조와 최선화 부부는 정정화의 공백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기도 했다. “더욱이나 피난을 갈 적마다 안아다 주고 얼러 주며 고맙게 하던 성업부인 정정화 씨가 없으니 더욱 쓸쓸한 듯하다.”<sup>36</sup> 하지만 왜 정정화의 이름 앞에 ‘성업 부인’이 먼저 따라왔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묻지 않았다. 그 사실을 정정화도 잘 알고 있었다.

정정화는 임시정부 안주인으로서의 ‘덕목’을 항상 실천했고, 그것이 곧 독립운동의 일부라고 믿었다.<sup>37</sup> 제국주의에 맞서는 민족운동이 가부장제와 결합될 때, 여성에게 요구되는 전통적 가치관은 더욱 강화되었던 것일까?<sup>38</sup> 반대로 봉건

---

35 정정화, 앞의 책, 174-175쪽.

36 양우조·최선화, 김현주 정리, 『제시의 일기』, 우리나라비, 2019, 69쪽.

37 신재호의 아내 박자혜가 독립운동가의 아내가 된 이후부터 죽는 순간까지 남편을 위해 자신의 개인적 삶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한 생애에 대한 복원 및 분석으로 아래의 연구를 참조. 윤정란, 「일제 강점기 박자혜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아내로서의 삶」, 『이화사학연구』 제38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2009, 67-94쪽.

38 송연옥은 식민지 상황에서 근대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한없이 분열되고, 근대교육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들이 정치적 상황에 노출되고 그 폭력에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송연옥,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불행한 결렬: 1930년대의 한국 ‘신여성」, 『페미니즘연구』 제1호, 동녘, 2001, 53-73쪽 참조. 김은실은 「민족담론과 여성」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여성은 민족과 가족이 재현하고 싶은 이미지와 의미의 기표이면서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여성들이 갖는 개별적 경험주체로서의 여성, 할머니/어머니/아내 한민족이란 정체성이 경합할 때, 여성들은 어떤 정치적 조건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혹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역사적 현실이 그 조건을 결정한다고 할 때, 그 역사적 현실을 규정하는 담론의 주체는 누구인가?” 한국적, 민족적이라는 표현이 여성의 삶을 규정하고 설명할 때 여성들의 주체가 전

제와 신분제가 무너지고 식민지를 경험한 여성들이 새로운 국가와 삶을 꿈꾸기 시작하며 가부장제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던 것일까?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 상황이 망명 정부에 혼재되어 있었고, 정정화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역설과 모순들이 반복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임시정부의 여성 참여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확대되고 있었다. 정정화도 1940년 전후로 “공적인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정정화는 1940년 6월 한국혁명여성동맹 창립총회에 참가했다.<sup>39</sup> 그리고 1943년 결성된 한국애국부인회에서 정정화는 권기옥, 연미당, 방순희, 민영주 등과 활동하며, “부녀의 정치 경제 교육 사회상 권리 및 지위 평등을 획득하기에 분투하기로 함”을 강령으로 채택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되는 여성의 비율 및 광복군 출신의 여성 임시정부 직원, 여성 광복군의 숫자는 모두 증가 추세였다.<sup>40</sup> 1920년대 초반 애국부인회에 비판적 입장을 가졌던 정정화는 약 20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애국부인회’ 재건에 참여했다. 상해에 도착했을 당시 신여성을 바라보았던 냉소적인 시선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달라졌고, “그 중 몇몇 사람하고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다.<sup>41</sup> 중국 망명길에 올랐을 때, 그리고 임시 정부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건이었다. 정정화와 권기옥의 인연은 더욱이 특별했다.

권기옥은 3·1운동 당시 송의여학교 송죽회의 일원으로 평양 3·1운동을 이끌었고, 6개월의 수감 생활을 거친 후 1920년 11월 말에 상하이에 도착했다.<sup>42</sup> 이력으로 보면 권기옥은 정정화가 비판했던 ‘여학생 출신’이었지만, 1923년 운

---

형화되는 과정을 날카롭게 고찰한 김은실의 문제 제기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은실, 「민족 담론과 여성-문화, 권력, 주체에 관한 비판적 읽기를 위하여」, 『한국여성학』 제10호, 한국여성학회, 18-52쪽, 1994.

39 김자동, 앞의 책, 147-150쪽.

40 이와 관련해서는 이준식, 앞의 글, 126-133쪽 참조.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의 딸로 태어나 광복군 입대 후 기관지 『광복』 편집 및 광복군 모집 등의 활약상을 펼친 지복영의 회고록 또한 1930-40년대 임시정부 상황 및 중국에서 활동한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지복영, 『민들레의 비상—여성 한국 광복군 지복영 회고록』, 민족문제연구소, 2015, 13-138쪽 참조.

41 정정화, 앞의 책, 65쪽.

남성에 위치한 항공학교에 입학한 후 비행사가 되었고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며 임시정부에 관여했다. ‘세월이 흘러’ 1943년 정정화와 권기옥은 한국애국부인회 재건대회에 참여했고, 여성 정치의 가능성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정정화가 언급한 ‘깊은 우정’은 아마도 정치 활동이 아니었을까? 임시정부의 운명이 점차 험난해지자 중국 대륙을 떠돌며 정정화는 여성의 정치적 역량을 실감한다.

1932년 임시정부가 상하이로 탈출해 1945년까지 가흥, 남경, 장사, 광주, 중경으로 이동한 경로를 따라 정정화는 중국을 종횡하며 임시정부의 살림을 맡고 임정 요인들을 돌보는 일을 지속했다. 또한, 중경 임시정부 시기부터 한독당 창립 당원, 한국혁명여성동맹 간사, 애국부인회 간부 등을 맡으면서 사회적 활동의 반경을 넓혀갔다.<sup>43</sup> 임시정부 요인들은 정정화의 정치적 역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제1공화국 부통령 이시영은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온 정정화에게 감찰위원회 위원직을 제안한다.

내가 정치 일선에 몸을 담고 있지는 않았으나 외자인 성업이 정치계에 있었고, 주위의 여러 어른이나 친우들이 또한 정치의 거센 물결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30여 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정치현장의 와중에서 지내지 않았던가? 그러한 내 정치경력을 시험해 보기라도 하듯이 정계의 손길이 내게 뻗었다. 정부조직에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제의가 들어온 것이다.<sup>44</sup>

42 권기옥의 생애와 활동에 관해서는 윤선자, 『대한독립을 위해 하늘을 날았던 한국 최초의 여류비행사—권기옥』, 역사공간, 2016, 권기옥 역시 자전적 기록을 두 차례 발표했다. 권기옥, 「나는 한국 최초의 여류 비행사」, 『신동아』, 1967.8, 권기옥, 「나의 이력서」, 『한국일보』 1978.1.25-2.28 참조.

43 한국혁명여성동맹 및 중경 한국애국부인회의 사회적 활동 및 여성의 정치 참여에 관해서는 김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여성들의 독립운동: 1932-1945」, 『역사와 경계』 제68호, 부산경남사학회, 2008, 227-263쪽 참조.

44 정정화, 앞의 책, 284쪽.

정정화는 단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임시정부 출신들의 정치적 입장이기도 했다. 오직 이시영만이 단정에 참여했고 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실권이라고는 거의 없는 부통령직에 취임하는 데 동의하는 대신” 이시영은 감찰위원회의 인사권을 요청했고 정정화를 추천한다.<sup>45</sup> 하지만 정정화는 “반쪽짜리 정부에 들어가 일을 한다면 그것은 민족적인 죄를 범하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다. 정정화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훼손하고 싶지 않았다. “국민이 하나, 민족이 하나라는 사실”을 믿었던 김구를 기억하며, 정정화는 국가 내에서 자신의 정치권력을 확보하는 대신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보존하고자 했다.

해방 후에도 정정화는 여러 차례 역경에 처했다.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편이 납북되었고, 충격에 빠질 틈도 없이 “돈벌이할 만한 것을 찾아보다가 결국 행상을 나서기로 하고 보따리에 헌옷가지들을 주워 모아 머리에 이고 다녔다.” 더군다나 억울하게 부역자로 몰려 투옥되고 5년 구형을 받은 후 집행유예로 나온 정정화는 ‘요시찰인’으로 감시와 검문을 일상적으로 겪어야 했다. 80대 후반이 된 정정화는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남기기로 결심한다. 평생 소중하게 간직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내 손으로 들고 갈 것들”의 목록을 밝힌다. 바로 “임정에 몸 담았던 혁명투사들의 이름이 날날이 적혀” 있는 일지와 “본국으로 드나들던 때의 기록”이다. “30여 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정치현장의 와중에서” 지낸 정정화는 생애 말기 글쓰기라는 공적 영역에 진출했다. 정정화가 끝내 도달한 ‘옳은’ 일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정정화는 권력을 얻는 대신 글쓰기를 선택했고, 그 결과에 만족했다.

‘감찰위원 정정화’가 앓을 뻔했던 그 자리는 나중에 유(兪)모라는 여인에게 돌아갔다. 그 여인은 후에 자유당의 중진이 되었는데 4·19 이후에

45 국가 건설기의 여성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정현주,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여성정책』, 한국학술정보, 2009 참조. 한편 제1공화국의 여성단체와 여성 지도자들이 국가 형성에 참여한 방식을 분석하고, 여성적 공적 영역의 수용, 협력, 배제 과정을 공적영역의 젠더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로는 김은실·김현영, 「1950년대 1공화국 국가 건설기 공적영역의 형성과 젠더 정치」, 『여성학논집』 제29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2, 113-155쪽 참조.

는 부정선거 관련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인간만사 새옹지마(人間萬事塞翁之馬). 이 한 마디는 아흔 살 가까이 살아온 내가 지금 늘 가슴 한켠에 품고 있는 말이다. 사람의 일이란 잘 되고 잘못되고를 따질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를 먼저 헤아려야 되지 않을까.<sup>46</sup>

정정화는 “항일 투쟁의 대열에 섰던 단체나 개인에 대한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자신이 직접 글로 쓰겠다고 결심한다. “세세하고 사소한 것까지도 모두 포함되어야만 비로소 단체의 성격이나 개인의 활동노선이 바로 밝혀지리라 믿는 까닭에 국외의 광복전선에서 26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내 소박한 자격”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임정을 떠난 나 개인의 기록이라는 것은 아무런 생동감도 없고,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정정화는 “임정의 안팎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자신의 삶에 자긍심을 느꼈다. 정정화는 근대 교육과 해외 유학 등으로 주목받았던 신여성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사회적 입지를 구축하며, “사실 그대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좌고우면 하지 않고 임정 안팎의 얘기를” “진솔하게 털어놓았다.”<sup>47</sup> 그렇게 망명 정부와 삶의 궤적을 함께 한 여성 독립 운동가 정정화는 스스로의 생애를 직접 이야기하는 것으로 공적 역할을 수행했다.

무엇보다 정정화의 『장강일기』는 근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구여성이 신여성을 경계하고 비판하면서도 학교 밖에서의 독서와 학습 및 정치적 참여의 과정을 통해 신여성과 경쟁하는 한편 그들과 만나 우정을 쌓으며 여성 연대의 힘과 가능성을 자신의 삶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가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동시에 정정화의 『장강일기』는 여성이 자신의 삶을 직접 글로 남긴다는 행위의 의미를 다시금 환기시킨다. 정정화의 시아버지 김가진은 70세가 넘은 나이에 망명을 결단하고 임시정부에 참여하며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반면 정정화는 80대 후반에 자기 삶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정치적 견해를

---

46 정정화, 앞의 책, 287쪽.

47 김자동, 앞의 책, 448쪽.

밝혔다. 가부장제와 결합된 독립운동에서 젠더화된 역할로 자신의 사회적 입지를 확보한 여성이 해방 후 일체의 공적인 지위를 거부하고 글쓰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여성이 자신의 삶을 글로 쓴다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 발화이자 정치적 참여임을 정정화의 삶에서 확인하게 된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정정화, 『장강일기』, 학민사, 1998, 17-341쪽.

지복영, 『민들레의 비상—여성 한국 광복군 지복영 회고록』, 민족문제연구소, 2015, 13-138쪽.

한도신 기록, 김동수·오연호 정리, 『꿈 갓흔 옛날 피 압흔 이야기』, 돌베개, 1996, 7-158쪽.

『독립신문』, 『한국일보』, 『신동아』

### 단행본

김자동, 『임시정부의 품 안에서』, 푸른역사, 2014, 64쪽.

노지승, 『유혹자와 희생양—한국 근대 소설의 여성 표상』, 예옥, 2009, 52쪽.

박용옥, 『김마리아—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 홍성사, 2003, 12-58쪽.

신명식,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안살림꾼 정정화』, 역사공간, 2010, 7-8쪽.

신복룡, 『대동단실기』, 선인, 2014, 23-59쪽.

소현숙, 「3·1운동과 정치 주체로서의 ‘여성’」,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 100주년 기획위원회 엮음, 『3·1운동 100년—5.사상과 문화』, 휴머니스트, 2019, 161-186쪽.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3, 508-522쪽.

양우조·최선화, 김현주 정리, 『제시의 일기』, 우리나라비, 2019, 69쪽.

윤선자, 『대한독립을 위해 하늘을 날았던 한국 최초의 여류비행사—권기옥』, 역사공간, 2016, 9-48쪽.

- 윤정란, 『조신성—서복을 호령한 여성독립운동가』, 역사공간, 2009, 21-38쪽.
- 정병준, 『현앨리스와 그의 시대—역사에 휩쓸려간 비극의 경계인』, 돌베개, 2015, 17-430쪽.
- 정현주,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여성정책』, 한국학술정보, 2009, 26-53쪽.
- 거다 러너, 김인성 역, 『역사 속의 페미니스트—중세에서 1870년까지』, 평민사, 1998, 304-310쪽.
- 쑤커즈, 『상해한인사회사:1910-1945』. 한울아카데미, 2001, 25-111쪽.
- 한나 아렌트, 이진우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17, 43-188쪽.
- Leonore Davidoff, *Worlds between: historical perspectives on gender and class*, Polity Press, 1995, pp.13-139.
- Mary Ryan, “Gender and Public Access: Women’s Politics on 19th Century America,” John B. Landes ed., *Feminism, The public and the private*,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8-503.

## 논문

- 강영심, 「김순애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3호, 한국근현대사학회, 2012, 7-41쪽.
- 김귀옥, 「식민적 디아스포라와 저항하는 여성—이은숙과 정정화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2호,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79-112쪽.
- 김성은, 「상해 임정시기 여성 독립운동의 조직화와 특징」, 『여성과 역사』 제29호, 한국여성사학회, 2018, 287-338쪽.
- \_\_\_\_\_,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여성들의 독립운동:1932-1945」, 『역사와 경계』 제68호, 부산경남사학회, 2008, 227-263쪽.
- 김정인, 「일제시기 서울의 여학생 운동」, 『일제시기 경성 지역 여학생의 운동과 생활』, 2019 서울역사 중점연구 중간발표회, 2019, 14-42쪽.
- 김은실, 「민족 담론과 여성—문화, 권력, 주체에 관한 비판적 읽기를 위하여」, 『한국여성학』 제10호, 한국여성학회, 1994, 18-52쪽.
- 김은실·김현영, 「1950년대 1공화국 국가 건설기 공적영역의 형성과 젠더 정치」, 『여성학논집』 제29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2, 113~155쪽.

- 박용옥, 「김마리아의 망명생활의 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22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9, 267-338쪽.
- 송연옥,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불행한 결렬」, 『페미니즘연구』 제1호, 동녘, 2001, 53-73쪽.
- 이준식,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여성 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61호, 200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07-141쪽.
- 이배용, 「중국 상해 대한애국부인회와 여성독립운동」, 『이화사학연구』 제30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2003, 343-364쪽.
- 이상경, 「상해판 『독립신문』의 여성관련 서사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10호, 한국여성연구소, 2010, 89-128쪽.
- 윤정란, 「독립운동가 가족구성원으로 여성의 삶」, 『한국문화연구』 제14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105-132쪽.
- \_\_\_\_\_, 「일제 강점기 박자혜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아내로서의 삶」, 『이화사학연구』 제38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 2009, 67-94쪽.
- 정미경, 「일제 시기 ‘배운 여성’의 근대교육경험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석사학위논문, 2000, 1-173쪽.
- 한시준, 「정정화의 생애와 독립운동」, 『사학지』 제47호, 단국대학교 사학회, 2013, 131-153쪽.

## Abstract

A Secret Envo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Self-Narrative of Jeong, Jeong-Hwa

Jang, Youngeun

Some of the femal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continued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China after completing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Even though the Shanghai Korean Patriotic Women's Club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 provisional government's internal viewpoint on them was conflicting with each other. Especially, the status of wife or daughter-in-law of independence activists like the women who were a member of the family of independence activists, critically evaluated those female activists who participat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as a female student, which is shown from Jeong, Jeong-Hwa's 『Janggang Journal』. After coming to Shanghai as an exile in January 1920, Jeong, Jeong-Hwa actively worked as a secret envoy in charge of fund raising/transfer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till 1930. She devoted herself to all sorts of works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so that she was even called the hostes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Even though Jeong, Jeong-Hwa who got married in her age of 11, had a hostile and critical viewpoint on the modern women, she gradually had an active attitude toward the political participation by slowly expanding her exchanges with female intellectuals while working at the provisional government. After the liberation, Jeong, Jeong-Hwa turned down a proposal for the position of inspector. However, her autobiography 『Janggang Journal』 published in the late 1980s, proves that her lifetime accords with the trace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e 『Janggang Journal』 as an autobiography also secures the value of data such as the history of independence movement, war history, family history, and the history of women. Re-reading the 『Janggang Journal』 by paying attention to the process in which Jeong, Jeong-Hwa composed her own life under the discrimination and competition with the modern women, this thesis verifies that the provisional government had such meanings of personal area and also semi-public area to Jeong, Jeong-Hwa.

Key words: Jeong Hwa Jeong, 『Janggang Journal』, Self-Narrative, Provisional Government, New Women, Independence Movement,

본 논문은 2019년 1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